

8강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과 전쟁

1.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핵심 포인트

[학습내용 및 핵심포인트]

1. 동아시아에서의 집단적인 인구 이동
2. 이주정권에서 지역 국가로의 변모 과정
3.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문물 교류

[학습목표]

1. 동아시아에서 집단적인 인구 이동의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동아시아에서 집단적인 인구 이동의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동아시아에 나타난 이주 정권이 지역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문물 전파와 상호 교류의 증대를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2. 사례

- 서울 송파구 백제시대 고분군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대형 돌무지무덤이 7기가 있다. 그런데 이 고분들은 중국 랴오닝성 등지에 수없이 남아 있는 고구려 돌무지무덤과 만드는 방식이나 모양이 유사하다. 한강 유역에 있는 백제초기 고분이 압록강 너머에 있는 고구려초기 고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이동해온 사람들이 세웠고,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이동해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지역의 패권을 다투었지만, 결국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는 상호 대립과 전쟁도 벌였지만 인구가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문물이 각국으로 전파되고 문물이 상호 교류하는 이른바 '열린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석촌동 백제초기 돌무지무덤(서울) 밑면 약45.5m×43.7m,
높이 4.5m로 3단으로 되어 있다.

1. 인구 이동의 전개

동아시아에서는 기원 전후 시기부터 유목민과 농경민 모두 자신들의 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동의 방향은 대체로 남하였다.

집단적인 인구 이동은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인구 증가,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전쟁, 집단적인 강제 이주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인구 이동은 토착민과 이주민, 먼저 들어온 이주민과 뒤에 들어온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 결과 연쇄적으로 2차, 3차의 이동을 일으켰다. 대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속속 성립되었고 이들 사이에 새로운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다. 인구 이동에 따른 문화의 전파와 교류도 활발해졌다.

기원 전 1세기 경, 만주 북부의 송화 강 일대에 살던 부여족의 일부가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토착민인 예족과 맥족을 아울러 고구려를 세웠다. 이어 고구려 정권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다시 그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토착의 마한 세력을 누르고 백제를 세웠다. 또 한사군이 고구려에 완전히 멸망한 4세기 이후에는 그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여 백제와 가야 연맹이 발전하는 데에 공헌하였다. 특히 가야인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 왜로 이주하였는데, 이후 두 지역 사이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한편, 만주 북부, 내몽골 등에서 화북 지방으로 남하해온 선비, 흉노 등의 북방 민족은 3세기 이후 그곳에 속속 새로운 정권을 세웠다. 한족은 이들을 '5호'라고 불렀는데, 그 중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전연과 후연은 지금의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 고구려와 라오둥 지역을 놓고 패권을 다투기도 하였다.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또 다른 선비족의 일파가 세운 북위에 의해 5세기 초에 통일되었다.

5호에게 화북 지방을 빼앗기고 양쯔 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온 한족은 지금의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을 세워 화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였다. 이후 강남에 차례로 들어선 한족 국가들은 북방민족이 화북 지방에 세운 북조와 대립하였다.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삼국이 항쟁하던 시기에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꾸준히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다.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확대, 삼국 간 전쟁의 격화, 신라의 삼국 통일 등 한반도에서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마다 많은 가야인,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 열도로 건너갔다. 남북조 시기의 오랜 전쟁에 시달리던 양쯔 강 유역의 한족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을 '도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야마토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세토나이카이를 중심으로 큐슈와 기나이 간에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일어났고, 야마토 정권이 열도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감에 따라 인구도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2. 이주 정권에서 지역 국가로

인구의 대규모 이동으로 각 지역에서는 토착 정권과 이주 정권, 이주 정권과 이주 정권 사이에 빈번한 전쟁과 정복,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나 초기에 유목민과 농경민, 토착민과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던 이주 국가들은 점차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동화 혹은 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정권의 안정을 꾀해 갔다.

중국 대륙에서는 북위를 필두로 한 북조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통해 호한 융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북조는 6세기 말에 이르러 남조를 누르고 수·당의 통일 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 수·당은 과거 한족과 비한족이 거주하던 모든 영역을 자신의 지배 밑에 두려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함으로써 그 의도를 드러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7세기 전반에 이르도록 팽팽하게 맞섰다. 세 나라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한편, 안으로는 집권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밖으로는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면서 동아시아 세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권력의 이동, 국가 간의 갈등이 일단 마무리된 것은 7세기에 한반도의 삼국 통일을 둘러싼 대규모의 국제전을 치른 뒤였다. 그 결과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었고, 신라는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지역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만주에는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발해가 건국되어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즈음에 일본 열도의 왜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고,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정하였다.

북부 베트남은 기원전 2세기에 한에 복속된 이래 오랫동안 중국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토착민을 중심으로 수.당 제국의 직접 지배에 저항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일으켰고, 마침내 10세기에 독립을 이룸으로써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고정된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당, 신라, 발해, 일본, 베트남 등은 내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지역을 통합해가는 한편, 밖으로 안정적인 대외관계 유지와 교역의 활성화, 문물 교류를 위해 노력하였다.

3. 문물의 전파와 상호 교류의 증대

인구 이동과 전쟁이 빈발하던 이 시기에 각 이주 집단이나 지역 정권은 철기의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철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와 기술자를 얻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철기의 확보가 교역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했다. 철기의 전파 경로는 한반도를 통한 인구의 남하 경로와 대체로 일치한다. 먼저 중국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에 의해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전해지고, 점차 한반도 남부로 확산된 후 가야를 통해 일본 열도까지 전파되었다. 이 시기 가야는 뛰어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철기를 생산하여 중국, 한반도 서북 지방, 남해안, 일본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화북 지방에 거주하던 한족이 대거 이주해오며 따라 양쯔 강 이남 지역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주민들이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적인 토목 기술을 활용하여 강남 지방의 늪지대를 비옥한 농경지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원래 강남 지방은 물이 풍부하고 날이 따뜻하여 농작물이 자라기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었다. 다만 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주민들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물빼기 작업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은 꾸준히 늘어났다.

당에는 학문적,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외국인 사신, 유학생, 유학승, 상인, 무인, 예술인 등이 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고유의 종교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집단으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당은 마치 세계 문화의 경연장 같았다. 세계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서로 교류하고 융화되었으며 다시 인적 교류를 따라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도 서로 교류하고 융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 결과 7~8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의 문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각 국가나 정권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던 이 시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 당의 과거에 합격한 최치원이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당과 일본 사이를 중개하여 해상 무역을 독점한 장보고, 바닷길과 비단길을 통해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는 신라 출신이었다.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당을 순례한 뒤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긴 승려 엔닌과 당의 과거에 합격하여 베트남의 통치를 담당하는 안남도호부의 도호를 역임한 아베노 나카마로는 일본 출신이었다. 당 출신으로 일본에 문물을 전한 감진처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승려들도 있었다. 과거에 합격하여 당의 재상을 지낸 크영 공 푸(강공보)와 크영 공 폭(강봉복) 형제는 뛰어난 문장가로, 당의 통치를 받던 베트남 출신이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열린 세계였고 그래서 이른바 세계인의 등장도 가능하였다.

4. 퀴즈

1. 동아시아에서의 집단적인 인구 이동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후의 변화
- ② 종족 내의 정치적 갈등
- ③ 집단 이주정책
- ④ 인구의 감소

정답 ④ 인구의 감소

집단적인 인구 이동은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인구 증가,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전쟁, 집단적인 강제 이주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2. 동아시아에서의 집단적인 인구 이동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고구려의 건국
- ② 신라의 건국
- ③ 도래인의 등장
- ④ 강남의 개발

정답 ② 신라의 건국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한반도와 양쯔 강 유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의 등장, 한족이니 집단 이주에 의해 개발된 강남의 경제 발전 등은 모두 인구 이동의 결과이다. 반면 신라는 이주 정권이라기보다 토착 정권에 가깝다.

3. 동아시아에 등장했던 '세계인'으로 적절한 인물을 들어보시오.

정답 : 최치원, 장보고, 혜초, 엔닌, 아베노나카마로, 크영 콩 푸, 크영 콩 폭.

5. 학습정리

이번 장에서 이해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동아시아에서는 기원 전후 시기부터 유목민과 농경민 모두 자신들의 근거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동의 방향은 대체로 남하였다.
- 집단적인 인구 이동은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인구 증가,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전쟁, 집단적인 강제 이주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 인구의 대규모 이동으로 각 지역에서는 토착 정권과 이주 정권, 이주 정권과 이주 정권 사이에 빈번한 전쟁과 정복,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다. 이주 국가들은 점차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동화 혹은 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정권의 안정을 꾀해 갔다.
- 7세기에 한반도의 삼국 통일을 둘러싼 대규모의 국제전을 치른 뒤,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었고, 신라는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만주에서는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왜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 정권을 안정시킨 후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정하였다.
-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도 서로 교류하고 융화되어 7~8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의 문물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양한 문화가 전파되고 상호 교류가 확대되었으므로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지 않아 이른바 '세계인'이 등장하였다.